

아파트 안방의 주생활행위와 가구사용행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Behavioral Patterns and Furniture Usage in An-Bang of Apartment

이 미 혜*
Lee, Mi-hye

윤 재 응**
Yoon, Jae-Woong
장 석 하***
Jang, Suk-H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behavioral patterns and furniture usage in An-Bang of apartment. For this purpose, a survey was conducted by 215 housewives who lives in Taegu by the size of floor space, 20-49Pyong. The data were analyzed by using frequencies, percentage, mean, factor analyzing,

χ^2 -test, cluster analyzing.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1. The major behavioral patterns in an-bang is sleeping, make-up · fitting, but can't be neglected family-gathered and guest meeting.
2. The patterns of furniture usage are grouped into four clusters and principle furniture arrangement is floor type.
3. Behavioral patterns and furniture usage related with factors.

I. 서 론

최근 도시에는 아파트가 새로운 주거유형으로 보편화되고, 주택 내부공간은 기능적 분화와 더불어 서구화, 입식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간구성의 변화 속에서도 아파트의 안방은 거주자들의 과거 주거경험에 의해 생긴 성향이나 관습 등 전통적 의식이 강하게 지속되고 있어 주 공간과 주생활 사이에 다양한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다.

현대주택에서의 전통계승이란 옛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회, 문화적 변화에 따라 적절히 수용되는 것이라고 볼 때, 현재주거 공간에서 안방의 공간적 위상과 성격, 기능 등이 명확하게 규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주거공간의 위상과 성격 등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물리적, 기능적인 면과 더불어 거주자들의 주생활양식을 중심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주생활양식은 주거공간의 이용방법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표출되기도 하며, 공간의 조직, 재료의 사용, 가구 및 설비 등을 통하여 표출되기도 한다(김미희, 1992).

생활양식(life style)과 주거공간과의 상호관계에서 나타나는 식별성은 주택내부공간에서 뚜렷이 부각되고, 소유물의 성격과 배치방식은 거주자의 생활상에 관해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Ruesch와 Kees, 1956)고 하였으며, 특히 가구가 생활상에 관해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였다(國島道子, 1985). 이와같이 가구 소유량과 입식가구로 인한 공간점유 면적의 증가는 전반적인 행위공간에 제한을 가하게 되어 가족들의 일상생활 및 가족공동행위와 결속에 중요한 규제요인이 되기도 한다.

*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박사과정수료
**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교수, 공학박사
*** 경일대학교 교수, 공학박사

그러나 지금까지의 주거공간 관련연구들은 주 생활양식을 규명(최목화, 1992; 조성희, 1994, 김미희외, 1998)을 하거나 안방에서의 주생활 태도 및 이용행태 특성에 관한 연구(이영호외, 1991; 김종인, 1995)들로서 거주자들의 생활행위와 가구사용 행태와 관련하여 안방의 성격과 기능 등을 규명하려는 시도는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파트 거주자들의 안방생활 행위와 가구사용 행태와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안방의 공간적 성격과 기능 등을 규명함으로써 아파트 평면계획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안방공간의 주생활행위 및 발생분포를 파악한다.

둘째, 안방공간의 가구사용행태를 파악한다.

셋째, 주생활행위와 가구사용행태와의 관련성을 규명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연구는 대구시의 20-40평형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은 표집대상을 무작위로 추출하였으며, 1999년 8월 10에서 8월 14일까지 설문지 20부와 면접을 통하여 예비조사 한 후, 본조사는 1999년 9월 5일에서 9월 23일에 걸쳐 설문지법을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300부를 배포하여 243부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지중에서 응답이 미비하거나 부실 기재된 11부와 안방을 자녀방으로 사용하고 있는 가구 17부를 제외한 215부를 최종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2. 조사내용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선행연구(조성희, 1987; 김미희, 1992; 이영호, 1991; 김종인, 1995)와 관련 문헌, 거주자들의 면담자료 등을 기초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작성, 예비조사를 거쳐 수정, 보완하였다. 설문내용은 거주자의 일반적 사항과 안방에서의 주생활 행위, 가구사용을 묻는 문항으로

표 1. 주생활행위 문항의 신뢰도

변 인	신뢰도(cronbach'α)
요인 1 ; 손님맞이	.8982
요인 2 ; 취미생활	.6684
요인 3 ; 휴식생활	.5563
요인 4 ; 가족단란	.6316
요인 5 ; 가사생활	.8035
요인 6 ; 몸 단 장	.7870

구성 되어있다. 안방에서의 주생활행위의 신뢰도(cronbach'α)는 표 1과 같다. 가구사용에 관한 문항은 안방에서의 가구소유 유무를 묻는 문항과 실제 안방의 가구배치를 가구종류와 함께 표시하도록 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pc를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비교, 요인분석, 군집분석, 교차분석, χ^2 -test등을 실시하였다.

III. 조사결과 및 논의

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가족수, 가족유형, 가족주기, 남편직업, 남편학력, 수입, 주부연령, 주부의 취업유무, 아파트 규모(평형) 등을 조사하였다.(표 2.)

연구대상자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주부연령은 30대(41.4%)에서 40대(45.1%)가 전체의 86.5%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족수는 평균 4.33인으로 4인 가족이 64.2%로 가장 많았으며, 5인 이상 가족도 31.6%를 차지하고 있었다. 확대가족과 핵가족으로 분류한 가족유형은 조사대상자 가족의 대부분이 핵가족(94%)으로 나타나 특성변인으로서의 의미를 갖지 못하였다. 남편의 학력은 대졸이상과 고졸이 각각 55.8%, 40.5%로 고졸이상이 전체가구의 96%로 비교적 높은 학력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가족주기는 대학교육기가 38.6%, 중등교육기 32.6%, 초등교육기는 28.8%의 순으로 나타나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조사대상가구의 평형은 평균 34평이며, 40평형대가 26.5%, 30평형대가 42.3%, 20평형대가 31.2%로 나타나 비

표 2.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분포

변인	변인범주	f(%)	변인	변인범주	f(%)
가족수	3명	9(4.2)	가족주기	초등교육기	62(28.8)
	4명	138(64.2)		중, 고등교육기	70(32.6)
	5명이상	68(31.6)		대학교육기	83(38.6)
	계	215(100)		계	215(100)
	평균	4.33		판매, 서비스	34(16.2)
가족유형	핵가족	202(94.0)	생산직	16(7.6)	
	확대가족	13(6.0)	사무직	70(33.3)	
	계	215(100)	전문직	52(24.8)	
수입	100만원미만	2(0.9)	관리직	38(18.1)	
	100-200만원	64(29.8)	계	210(100)a	
	200-300만원	100(46.5)	30대	89(41.4)	
	300만원이상	49(22.8)	40대	97(45.1)	
	계	215(100)	50대	29(13.5)	
남편학력	중졸이하	8(3.7)	계	215(100)	
	고졸	87(40.5)	평균	42.27	
	대졸이상	120(55.8)	20평형대	67(31.2)	
	계	215(100)	30평형대	91(42.3)	
주부취업유무	유	143(66.5)	40평형대	57(26.5)	
	무	72(33.5)	계	215(100)	
	계	215(100)	평균	33.99	

a; 무직을 제외한 사례

교적 고른 분포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2. 안방에서의 주생활 행위

안방에서 주생활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생활 행위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행위의 종류와 그 발생분포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1) 주생활행위의 발생분포

안방의 주생활행위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26개항의 행위 분포 상태를 살펴본 결과 발생분포는 부부취침(97.2%), 화장(95.3%), 몸단장(93.5%) 등의 항목이 90%이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다음이 휴식(67.4%, 40.5%), 신문·잡지보기(51.6%), TV시청(44.2%), 가장의 취미(41.9%), 주부의 취미(41.9%), 다름질(37.2%), 바느질(37.2%)의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그리고 가족모임이나

가족담소등의 항목이 20%를 상회하는 정도의 빈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식사행위(2.3%, 3.7%)나 간단한 운동(5.6%), 화초 가꾸기(4.7%) 등 안방의 기능과 관계성이 약한 부분은 빈도가 가장 낮았다. 따라서 안방에서의 주생활행위는 부부의 개인적 생활행위가 가장 많았으며, 부부의 휴식행위와 주부의 가사노동이 차순이며 운동, 식사 등 안방의 기능과 관련성이 약한 부분은 빈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2) 주생활행위의 특성

안방에서 발생할 수 있는 26개의 주생활행위를 바탕으로 요인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방법은 주성분 분석방법(principal component method)과 요인의 행을 단순화하기 위해 베리맥스(Varimax)회전 방법을 사용하였다. 요인분석 과정에서, 안방에서 기본적인 기능인 취침행위와 발생분포가 10%

표 3. 주생활행위의 분포

주생활행위	f (%)	주생활행위	f (%)
TV시청	100 (44.2)	학습지도	28 (13.0)
음악감상	44 (19.5)	독서 및 연구	65 (29.8)
신문잡지	111 (51.6)	가족모임(회의)	54 (24.7)
여름휴식	87 (40.5)	가족담소	56 (26.0)
겨울휴식	145 (67.4)	예우손님	38 (17.7)
여름식사	5 (2.3)	가장의 손님	43 (19.5)
겨울식사	8 (63.7)	주부의 손님	38 (17.7)
부부만 취침	208 (97.2)	친척맞이	49 (22.8)
자녀와 취침	39 (18.1)	차후식	39 (18.1)
다름질	80 (37.2)	화장	204 (95.3)
바느질	80 (37.2)	몸단장	202 (93.5)
가장취미	90 (41.9)	간단한 운동	12 (5.6)
주부취미	90 (41.9)	화초가꾸기	10 (4.7)

미만인 행위는 행위 특성분석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외키로 하였다. 그 결과 주생활 행위변인으로는 20개(표4) 항목이 채택되었으며, 20개 항목을 요인부하치 0.40을 기준으로 6개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주생활행위 요인분석 결과는 표5와 같이 Eigen 값이 1이상인 6개의 요인을 추출하였다. 각 요인의 분산 백분율이 28.17%, 10.65%, 8.60%, 7.57%, 6.65%, 5.60%로 이들 6개의 요인이 안방에서 이루어지는 주생활행위의 67.2%를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인부하값이 0.40이상인 것들을 중심으로 보면, 가장의 손님접대등 5개의 항목은 요인 1에 높게 부하되고, 독서 및 연구, 주부의 취미등 4개 항목은 요인2, 휴식과 신문·잡지 등 4개항목은 요인3, 가족담소, 회의 등 3개항목은 요인4, 다름질, 바느질은 요인5, 몸단장, 화장은 요인6에 높은 부하값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요인1은

표 4. 아파트 안방의 주생활행위 요인행렬표

변인	요인1 손님 맞이	요인2 취미 생활	요인3 휴식 생활	요인4 휴식 생활	요인5 가사 생활	요인6 몸 단장	공통 분산 비(h ²)
가장의 손님	.897	.020	.020	.020	.197	.020	.854
친척맞이	.859	.020	.020	.173	.020	.020	.795
예우손님	.815	.020	.112	.020	.176	.030	.714
주부의 손님	.814	.179	.020	.146	.020	.020	.722
차후식	.603	.336	.163	.283	-.124	-.105	.610
독서 및 연구	.020	.738	.127	-.101	.171	-.163	.628
주부의 취미	.223	.717	.020	.030	.105	.111	.589
가장의 취미	.169	.689	.020	.285	.020	.020	.591
학습지도	.020	.482	.245	.350	.139	.020	.435
신문잡지	.030	.304	.716	.020	.020	.020	.614
겨울휴식	.293	.020	.689	.020	.020	.030	.580
여름휴식	.357	.362	.535	-.167	-.171	.030	.602
음악감상	-.225	-.222	.468	.192	.221	.020	.405
가족담소	.260	.129	.020	.806	.110	-.103	.760
가족모임(회의)	.529	.239	-.146	.591	.254	.020	.770
TV시청	.148	.020	.497	.525	.050	.122	.569
다름질	.147	.124	.020	.020	.851	.105	.780
바느질	.255	.202	.154	.148	.813	.020	.813
몸단장	.020	.020	.030	.020	.202	.897	.813
화장	-.102	.020	.020	.020	.020	.889	.805
고유값	5.635	2.130	1.721	1.515	1.330	1.121	
분산의 백분율	28.175	10.652	8.606	7.575	6.650	5.606	
누적백분율	28.175	38.827	47.433	55.008	64.658	67.264	

표 5. 안방공간의 주생활행위 요인분포

안방 행위	단위; f(%)						
	부부 취침	요인6 몸단장	요인3 휴식생활	요인5 가사생활	요인2 취미생활	요인4 가족단란	요인1 손님맞이
	209 (97.2%)	189 (87.7%)	79 (36.7%)	73 (34.1%)	62 (28.8%)	55 (25.8%)	39 (18.3%)

“손님맞이”, 요인2는 “취미생활”, 요인3은 “휴식생활”, 요인4는 “가족단란”, 요인5는 “가사생활”, 요인6은 “몸단장”으로 명명하였다.

상기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아파트 안방의 20개 주생활행위는 크게 6개의 범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안방에서 일어날 수 있는 행위들의 요인점수를 살펴보면, 취침행위(97.2%)와 몸단장(87.7%) 등 부부 개인적인 행위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휴식(36.7%), 가사생활(34.1%) 등 부부의 휴식과 주부의 가사노동 기능도 포함하고 있었다. 그리고 다른 요인에 비해 비교적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지만 가족단란(25.8%)과 손님접대(18.28%) 등의 공적인 행위도 이루어지고 있었다(표5). 상기의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볼 때 안방의 주생활 요인은 부부의 개인적인 기능을 주목적으로 하되 가족과 접대 등 공적인 요인도 다분히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안방에 부설하고 싶은 실을 알아본 결과, 가장 요구가 높은 것이 화장실이고, 다음이 전용침실, 드레스룸, 서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안방이 전통적인 기능, 즉 가족모임이나 손님접대행위 등을 수용하면서도 부부만을 위한 전용공간으로서의 요구성도 강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생활행위 요인이 지역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차후 상호 비교분석이 요구된다.

3. 안방의 가구사용 행태

가구는 비언어적이면서 가족들의 주생활양식과 개성, 실의 성격등을 보여주는 의사전달도구라 할 수 있으며, 생활행위와도 밀접한 관계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안방에서의 가구사용 행태를 규명하기 위하여 가구소유와 배치방법을 분석하고, 군집

분석을 통하여 가구사용유형을 도출코자 하였다.

1) 가구소유 및 배치형태

공간활용 측면에서, 가구의 배치형태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소유하고 있는 가구종류와도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을 것이다.

설문지에서 채집된 안방에 배치된 가구를 4종류로 분류하여 종류별 분포를 표6과 같이 정리하였다.

가장 많이 비치된 가구는 수납기능을 가진 장롱과 문갑이 가장 많았으며, 부부의 휴식과 주부의 개인적 행위를 위한 TV(75.8%), 좌식화장대(54.05%) 등이 중요 가구로 나타났으며 안방의 기본적인 기능을 위한 침대는 수납기능을 가진 가구보다 보유율이 낮았다. 이는 침대(44.2%), 안락의자(5.1%), 입식화장대(29.8%) 등 의자식 생활행위에 필요한 가구가 많이 보급되었지만 표 6에서 나타나 듯이 아직도 전통적인 좌식생활행위에 따른 가구, 즉 문갑(69.3%), 좌식화장대(54%), 보료 및 깔개(22.3%) 등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안방의 가구배치는 ㄱ자형, ㄷ자형, 4면형, 병렬형의 4가지로 분류되었는데 이들 중에서 ㄷ자형(51.2%) 배치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ㄱ자형(22.8%), 4면형(12.5%), 병렬형(13.5%)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6).

가구의 배치형태와 가구의 종류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ㄱ자형의 배치는 장롱, 문갑, TV, 좌식화장대 등의 순으로 많은 분포를 나타내며, ㄷ자형은 장롱, TV, 문갑, 침대, 서랍장, 4면형은 장롱, 침대, TV, 서랍장, 병렬형은 장롱, TV, 문갑, 좌식화장대의 순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는 침대 사용유무와 침대배치방법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침대사용의 경우, ㄷ자형, 4면형의 배치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침대배치 방

표 6. 가구종류 및 배치분포

가구종류	가구종류	ㄱ자형 n=49	ㄷ자형 n=110	4면형 n=27	병렬형 n=29	계 f(%)
수납용	장 농	47	104	25	27	203(94.4)
	장식장	13	33	7	9	62(28.8)
	책 장	3	10	4	4	21(9.8)
	서랍장	21	51	18	14	104(48.4)
	문 갑	42	74	13	20	149(69.3)
	반닫이	1	2	3	2	7(3.3)
	2층장	6	13	2	3	24(11.2)
인체 지지용	행 거	17	40	12	14	83(38.6)
	침 대	5	62	25	3	95(44.2)
	안락의자	2	7	2	0	11(5.1)
작업용	소파류	3	7	3	0	13(6.0)
	티 테이블	2	8	5	0	15(7.0)
	책 상	0	3	3	2	8(3.7)
	좌식화장대	33	54	14	15	116(54.0)
	입식화장대	9	37	10	8	64(29.8)
	교자상	8	10	2	2	22(10.2)
기타	협 탁	0	26	9	4	39(18.1)
	보조 및 깔개	15	22	3	8	48(22.3)
	TV	38	83	21	21	163(75.8)
	전 축	18	43	12	8	81(37.7)
	컴퓨터	0	5	0	5	10(4.7)
	운동기구	1	3	0	0	4(1.9)
불박이설치	1	3	3	1	8(3.7)	

법에 있어서, 1벽면에 배치되면 ㄷ자형이, 2벽면에 배치되면 4면형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ㄷ자형과 4면형의 배치에 있어서, 가구종류의 차이는 침대배치 방법과 관련성을 갖게 됨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파트 안방의 가구 소유는 수납을 위한 가구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작업용인 화장대이며, 인체지지용으로는 침대가 높은 비율로 나타내고 있다.

장롱은 안방의 대표적인 가구라 할 수 있을 만큼 조사대상 가구의 대부분이 소유하고 있었으며, 장롱이 없는 경우는 불박이장이 설치되어 있었다. 공간 점유율이 가장 높은 침대의 경우, 거의 2가정당 1대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30, 40평형대를 대상으로 한 김미희(1992)의 연구와 일치하고 있으나, 침대소유율이 69.1%를 나타낸 장상옥외(1998)의 연구(1)와는 상반된다. 이것은 조사대상이 다르다는 점에서 그 까닭을

찾아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가구의 배치방법은 ㄷ자형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이는 불박이 가구가 거의 없는 한정된 공간내에 여러 종류의 이동식 가구를 배치하기 위한 방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구의 종류와 배치가 평형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침대를 제외한 다른 가구들은 이진숙외(1996)의 연구(2)에서와 같이 평형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2) 안방가구의 유형화

안방가구의 유형화를 살피기 위하여 계층적 군집분석(Hierarchical Cluster Analysis)을 하였다 (그림 1).

안방가구의 군집분석을 나타낸 그림1에서 군집계수 11.0을 기준하여 3개의 그룹으로 군집화 하였으며, 이들 분포는 표7과 같다.

이상과 같이 군집분석에 통하여 가구사용 군집을 파악하였으며, 다음은 이러한 가구군집들의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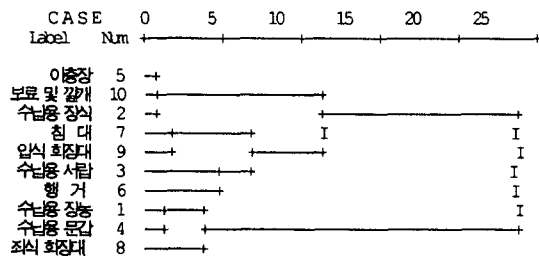


그림 1. 군집분석에 의한 덴드로그램.

표 7. 안방 가구군집 분포

구분	가구 품목
군집 1	이층장, 장식장, 보료 및 갈개
군집 2	침대, 의자식 화장대, 서랍장, 행거
군집 3	문갑, 좌식 화장대, 장롱

용 유무에 따라 그들을 조합하여 실증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구사용의 대표적인 유형들을 찾아내고자 한다. 가구사용 유형이 나타날 수 있는 범주는 발생유무의 두가지 경우이다. 따라서 군집이 각각 3개였으므로 23족 8개의 유형이 성립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6개의 유형을 이루고 있으나 그 분포비율이 높은 것부터 4순위(표 8)까지를 대표적인 가구사용 유형으로 선정하였다.

AH1유형(군집3)은 문갑, 좌식화장대 등 좌식생활에 편리한 가구들로 군집을 이루고 있어 “좌식(I)형”이라 명명하였으며, 분포는 응답자의 42.3%를 차지하였다. AH2유형(군집2)은 침대, 의자식화

표 8. 안방 가구사용 유형 분포3)

유형명칭	발생행위	분포N(%)
AH1	군집3 좌식(I)형	85(42.3)
AH2	군집2 입식형	35(17.4)
AH3	군집2+군집3 절충형	50(24.9)
AH4	군집1+군집3 좌식(II)형	31(15.4)
계		201(100)

장대 등 입식생활행위에 필요한 가구들로 이루어져 이를 “입식형”이라 명명하였으며, 17.4%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또한 AH3유형은 입식생활유형 군집2와 좌식생활유형인 군집3이 혼성되어 있어 “절충형”이라 이름하였으며, 분포는 24.9%이다. 그리고 AH4유형은 좌식생활이 주를 이루는 군집1과 좌식생활 유형인 군집3으로 이루고 있어 이를 “좌식(II)형”이라 이름하였고, 분포는 15.4%을 나타냈다.

따라서 안방가구 사용은 크게 4개의 유형으로 이루어짐을 규명하였다.

각 유형의 특성을 더욱 분명히 파악하기 위하여 각 가구사용 유형을 가구배치와의 차이검증을 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가구사용 유형과 가구배치는 서로 상대적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9)

현재 좌식(I)유형(AH1)의 경우 가구배치가 1자형(38.8%), 2자형(37.6%), 병렬형(23.5%)의 순으로 3가지 배치형을 나타내고 있으며, 입식유형

표 9. 가구유형에 따른 가구배치

가구유형 \ 가구배치	1자형	2자형	4면형	병렬형	계	X ²
(AH1) 좌식(I)형	33 ^a (67.3) (38.8) ^b	32 (32.0) (37.6)	-	20 (76.9) (23.5)	85 (42.3) (100)	
(AH2) 입식형	1 (2.0) (2.9)	21 (21.0) (60.0)	10 (28.6) (38.5)	3 (8.6) (11.5)	35 (17.4) (100)	
(AH3) 절충형	4 (8.2) (8.0)	34 (34.0) (68.0)	12 (24.0) (46.2)	0 (0.0) (0.0)	50 (24.9) (100)	
(AH4) 좌식(III)형	11 (22.4) (35.5)	13 (13.0) (41.9)	4 (12.9) (15.4)	3 (9.7) (11.5)	31 (15.4) (100)	
계	49 (24.4) (100)	100 (49.8) (100)	26 (12.9) (100)	26 (100) (12.9)	201 (100) (100)	

a: 각 범주의 빈도수
b: 가구배치의 빈도에 해당되는 백분율
c: 가구유형의 빈도에 해당되는 백분율

(AH2)은 ㄷ자형(60.0%), 4면형(28.6%)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절충식유형(AH3)은 ㄷ자형(68.0%), 4면형(24.0%)의 2가지 배치형, 좌식(II)유형(AH4)은 ㄷ자형(41.9%)과 ㄱ자형(35.5%)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좌식형과 전통형인 경우는 ㄱ자형과 ㄷ자형이, 입식형과 절충형인 경우는 ㄷ자형과 4면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주생활행위와 가구사용 형태와의 관련성

주생활행위와 가구사용형태와의 관련성을 규명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표 10과 같이 손님맞이행위는 가구배치와 가구유형에서 0.001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가족단란은 가구유형에서만 0.05수준에서 차이를 나타냈다. 몸단장의 경우는 가구배치에서만 0.05수준에서 차이가 있었다.

이들을 살펴보면, 안방에서의 손님맞이 행위는 ㄱ자형의 가구배치와 좌식유형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구배치에서는 4면형과 가구유형에서는 입식형이 가장 적게 일어나고 있었다. 가족단란행위는 가구유형에서만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좌식(I)형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입식형은 가장 적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 이유는 가구의 양적 증가 또는 침대로 인하여 가구가 차지하는 바닥 면적점유율이 높아 공간활용에 불편이 따르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몸단장은 가구배치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몸단장의 경우 대체로 모든 가구배치형에서 높은 발생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그 중 병렬형에서 다소 적게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안방에 딸린 침실에서 이루어지거나, 안방욕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추측할 수

표 10. 주생활행위별 가구사용 형태

주생활행위	가구형태	가구배치					가구유형				
		ㄱ자형	ㄷ자형	4면형	병렬형	계	좌식(I)형	입식형	절충형	좌식(II)	계
요인1 손님 맞이	비발생	33(67.4)	94(85.5)	26(96.3)	21(75.0)	174(80.9)	69(71.1)	34(100)	26(83.9)	25(86.2)	154(80.6)
	발생	16(32.6)	16(24.5)	1(3.7)	8(25.0)	41(19.1)	28(28.9)	0	5(16.1)	4(13.8)	37(19.4)
	계	49(100)	110(100)	27(100)	28(100)	215(100)	97(100)	34(100)	31(100)	29(100)	191(100)
	통계값	$\chi^2=12.811$ df=3 p<0.01					$\chi^2=14.553$ df=3 p<0.01				
요인2 취미 생활	비발생	36(73.5)	71(64.6)	18(66.7)	22(78.6)	147(68.4)	65(67.0)	26(76.5)	17(54.8)	21(72.5)	129(67.5)
	발생	13(26.5)	39(35.4)	9(33.3)	7(21.4)	68(31.6)	32(33.0)	8(23.5)	14(45.2)	8(23.5)	62(32.5)
	계	49(100)	110(100)	27(100)	28(100)	215(100)	97(100)	34(100)	31(100)	29(100)	191(100)
	통계값	$\chi^2=2.122$ df=3					$\chi^2=3.845$ df=3				
요인3 휴식 생활	비발생	22(44.9)	52(47.3)	13(48.2)	8(28.6)	95(44.2)	37(7.2)	19(55.9)	12(38.7)	16(55.2)	84(44.0)
	발생	27(55.1)	58(52.7)	14(51.8)	21(71.4)	120(55.8)	60(92.8)	15(44.1)	19(61.3)	13(44.8)	107(56.0)
	계	49(100)	110(100)	27(100)	28(100)	215(100)	97(100)	34(100)	31(100)	29(100)	191(100)
	통계값	$\chi^2=3.847$ df=3					$\chi^2=5.120$ df=3				
요인4 가족 단란	비발생	38(77.6)	82(74.6)	18(66.7)	16(57.1)	154(71.6)	64(66.0)	31(91.2)	21(67.7)	23(79.3)	139(72.8)
	발생	11(22.4)	28(25.4)	9(33.3)	13(42.9)	61(28.4)	33(34.0)	3(8.8)	10(32.3)	6(20.7)	52(27.2)
	계	49(100)	110(100)	27(100)	28(100)	215(100)	97(100)	34(100)	31(100)	29(100)	191(100)
	통계값	$\chi^2=5.498$ df=3					$\chi^2=9.093$ df=3 p<0.05				
요인5 가사 생활	비발생	23(46.9)	66(60.0)	13(48.2)	12(42.9)	114(53.0)	44(45.4)	23(67.6)	17(54.8)	15(51.7)	99(51.8)
	발생	26(53.1)	44(40.0)	14(51.8)	17(57.1)	101(47.0)	53(54.6)	11(32.4)	14(45.2)	14(48.3)	92(48.2)
	계	49(100)	110(100)	27(100)	28(100)	215(100)	97(100)	34(100)	31(100)	29(100)	191(100)
	통계값	$\chi^2=4.714$ df=3					$\chi^2=5.146$ df=3				
요인6 몸 단장	비발생	0	6(5.5)	0	4(14.3)	10(4.7)	2(2.1)	1(2.9)	0	2(6.9)	5(2.6)
	발생	49(100)	104(94.5)	27(100)	25(85.7)	205(95.3)	95(97.9)	33(97.1)	31(100)	27(93.1)	186(97.4)
	계	49(100)	110(100)	27(100)	28(100)	215(100)	97(100)	34(100)	31(100)	29(100)	191(100)
	통계값	$\chi^2=9.333$ df=3 p<0.05					$\chi^2=3.048$ df=3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안방의 주생활행위 중 특히 손님맞이행위의 경우, 가구사용행태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V. 결 론

한국전통주택의 안방공간은 집안의 상징적 중심공간이었다. 그러나 개화기 이후 근대화, 산업화 과정속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변화, 발전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파트 거주자들의 안방 생활행위와 가구사용 행태 그리고 이들과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안방의 공간적 성격과 기능 등을 규명함으로써 아파트 평면계획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안방의 생활행위는 취침을 제외한 몸단장, 휴식, 가사, 취미, 가족단란, 손님맞이 등 6가지로 나타났다. 이들 중 몸단장과 휴식행위 등 부부의 개인적 생활행위의 발생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가족단란이나 접대를 위한 생활행위 기능도 상당부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가구사용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가구유형과 배치형태와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가구유형은 좌식(I)형, 입식형, 절충형, 좌식(II)형 등 4가지로 분류되었으며, 가구배치는 ㄱ자형, ㄷ자형, 4면형, 병렬형 등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가구유형은 대체로 좌식생활행위에 적합한 가구들을 중심으로 이루고 있었으며, 전체적으로 가구배치방법은 가구유형과 관계없이 ㄷ자형 패턴이 많았으나, 좌식(I)형과 좌식(II)형은 ㄱ자형, 입식형과 절충형은 4면형 배치를 이루는 경향이 나타났다.

3. 주생활행위와 가구사용행태와의 관계는 손님맞이의 경우, 가구유형과 가구배치와의 관련성이 있으나, 가족단란의 경우는 가구유형에서, 몸단장은 가구배치에서만 관련성을 나타내었다.

손님맞이는 가구유형 중 좌식(I)형, ㄱ자형에 많았고, 가족단란은 가구배치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좌식(I)유형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몸단장은 가구배치에서만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중 병렬형에서 가장 적게 일어나

고 있었다.

이상과 같은 조사결과에 의하여 차후의 연구를 위한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안방의 주생활행위는 부부중심적 기능과 공·사기능이 혼용되어 있으며, 가구사용도 입식과 좌식이 혼용되어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이들 모두를 수용하는 안방공간의 평면개발이 요구된다.

2. 거주자 특성에 따른 안방의 주생활행위와 가구사용행태에 대한 다양한 비교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

- 1)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한 김정규의(1987), 김미희(1992)의 연구와 부산, 대구지역을 대상으로 한 이영호의(1991), 김종인의(1995)등의 연구에서는 안방의 주생활행위가 지역적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 2) 장상옥의(1998)의 연구대상은 서울시의 30-40평형 아파트이며, 만자녀 평균연령이 14.5세이다.
- 3) 이진숙의(1996)은 4개지역(서울, 대구, 광주, 대전)의 중산층이상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안방, 거실, 주방 및 자녀방의 가구소유를 조사한 결과 “대체로 아파트 규모가 커질수록 가구소유율도 높아지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가구의 종류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 4) 4가지 유형을 선정했을 경우 나머지 유형의 비율이 누락되어 살게수가 적은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선정된 4가지 유형과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유형은 각각의 유형에 할당시켰다.(김미희, 1992, 인용)

참고문헌

1. 김미희(1992), 평면규모 30평 및 40평형대 아파트 거주자의 공간사용방식, 대한건축학회지 제8권 10호 p25.
2. 김미희(1996), 대도시 아파트 거주자의 가구사용행태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제7권 1호 p75
3. 김정규·윤장섭·이광노(1987), 아파트에 있어서 안방과거실의 기능과 배치에 관한 연구, 대한건

- 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제7권 2호 p141.
4. 김종인(1995), 도시공동주거 안방의 이용행태 특성연구, 대한건축학회지 제11권 1호 p17.
 5. 신영숙(1991), 도시 중산층 아파트 가구의 생활양식과 실내의장 태도 유형연구, 한국주거학회지 제2권 2호 p55.
 6. 이영호·김종인(1991), 태도면에서 본 도시주거 안방의 성격분석, 대한건축학회지 제7권 6호 p43
 7. 이영호·엄인섭·김종인(1991), 이용행태면에서 본 주택유형별 안방의 성격비교,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제11권 2호 p105.
 8. 이영호(1991), 한국도시주거의 안방에 관한 행태적 연구,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9. 이진숙외 4인(1996), 대도시 아파트 거주자의 가구이용실태 및 선호조사, 대한건축학회지 제12권 8호 p3.
 10. 이화실(1993), 아파트 거주자의 가구와 주거용품의 소유 및 공간사용, 전북대 석사학위논문,
 11. 장상옥·신경주(1998), 아파트 거주자의 기거양식과 그 만족도 및 전망, 대한건축학회지 제14권 1호 p39.
 12. 조성희(1988), 주택유형에 따른 주공간 사용행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3. 최목화(1991), 현대 도시의 주거생활양식 유형 분류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제2권 1호.

(接受 : 2000. 1. 4)